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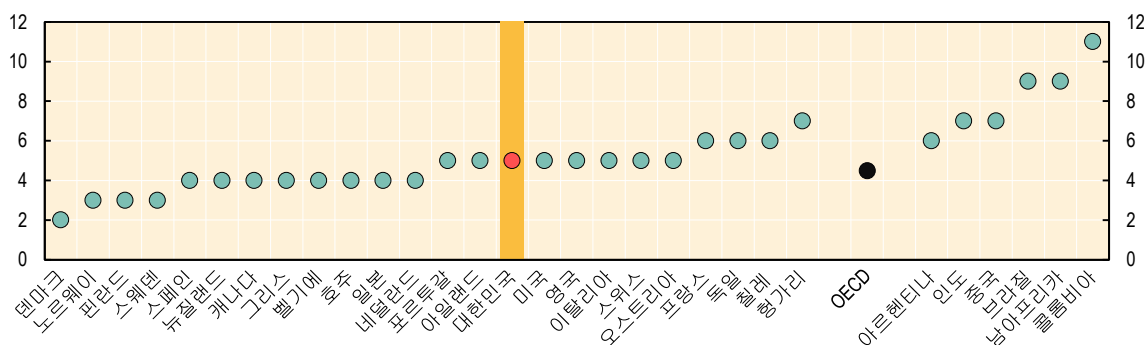
## 부러진 사회적 사다리?

사회이동 (social mobility)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 한국의 상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사다리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소득 사다리의 위에 있는 사람은 높은 소득 수준을 지속 향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회적 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부러졌고, 이는 경제, 사회, 정치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준다. 사회적 상향 이동이 어렵다는 것은 다수의 재능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웰빙 및 사회통합을 감소시킨다. 한국 사회의 '굳어진 바닥 (sticky floors)'은 소득 하위집단이 소득 상위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굳어진 천장 (sticky ceilings)'은 더 견고해서 소득 상위집단이 그보다 낮은 소득집단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우 낮다. 또한, 삶의 전 주기를 통해 중산층 가정이 소득감소 및 빈곤을 경험할 위험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저소득 가구 (소득 하위 10%)의 평균소득가구로 이동 소요기간 (예상 소요 세대수)



주: 부자간 소득 지속률(또는 변동률)에 기반해서 추정, 저소득 가구는 십분위 소득 중 1분위(인구 집단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10%)를 의미출처: A Broken Social Elevator? Chapter 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761910>

## 한국의 사회이동

부모의 부와 강점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다. 자녀의 출세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는데 41%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다른 국가 (OECD 평균 37%)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은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지위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및 세대간 사회이동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다섯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OECD 평균 (약 4.5 세대)에 비해 약간 긴 기간이 소요된다 (그림 1).

## 사회이동의 다양한 측면 - 굳어진 바닥과 굳어진 천장

사회이동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세대간'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현재 상황을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생애주기'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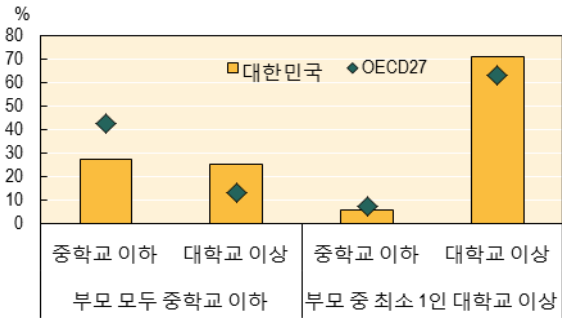
한국의 세대간 사회이동은 소득, 교육, 직업 등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높은 교육 이동성:** 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약 2/3 (71%)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6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림 2). 또한,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1/4 이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OECD 평균의 약 2 배에 해당한다.
- **평균 수준의 직업 이동성:** 한국에서는 관리자의 자녀 중 둘 중의 한 명은 관리자가 되었으나, 육체노동자의 자녀

네 명 중 한 명만 관리자가 되었다. 이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육체노동자의 자녀 중 약 40%는 육체노동자가 되었다.

**그림 2.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동성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굳어진 천장이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중등 이하 및 고등교육 수학을 비교



출처: A Broken Social Elevator? Chapter 1.

굳어진 천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 이동성은 OECD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3). 반면, 소득 이동성은 OECD 평균에 가깝고, 직업 이동성은 OECD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 및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청년 (15-29) 고용률은 낮은 편이며, 니트족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상당수의 청년들은 교육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서 머무른다. 자신의 직무능력에 상응하는 한정된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긴 대기 시간을 보낸다. 장시간 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한된 사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부족으로 여성 고용은 제약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여성 비중은 과다 대표되는 측면이 있다.

## 사회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강점이 자녀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들 전반적으로 사회이동에 현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을 더 원활히 하고 소득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강화하고, 출발선상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권한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목표 (Objective) #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마이스터 직업교육 학교와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하여 학교와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합하게 직업교육 교과를 개편한다.

### 목표 (Objective)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고, 집행을 강화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의무 인증제를 도입하고 경쟁을 강화한다.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를 개선한다.

### 목표 (Objective)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호법제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적용범위 및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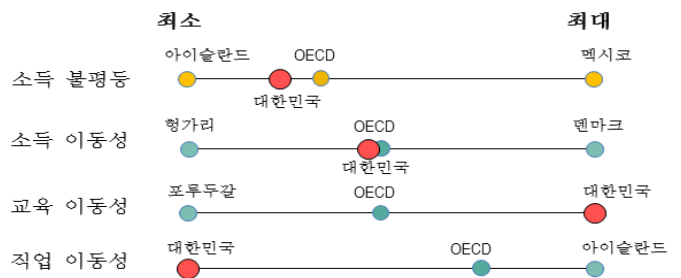
##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 이동성: 최상위 및 최하위 소득 분위의 이동성이 매우 낮음

한국에서 단기간에 개인의 소득수준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최상위 및 최하위 소득 분위의 이동성은 상당히 제한된다.

- 최하위 소득집단 (소득 하위 20%)이 보다 높은 소득집단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은 낮았고, 4년 동안 관찰했을 때 절반가량이 같은 소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굳어진 바닥'은 1990년 이후 더욱 견고해졌다.
- 같은 기간 동안 최상위 소득집단 (소득 상위 20%)의 소득 이동성은 더 낮아서 약 57%가 최상위 소득 분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대부분의 OECD 국가 (평균 6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최하위 소득집단의 낮은 사회이동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일부 설명된다. 한국 노동시장에는 정규직의 2/3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이 있고, 여성과 고령자가 이러한 비정규직에서 과다 대표되고 있다. 고령자가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른 나이에 이직한 후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림 3. 분야별 불평등과 이동성



출처: A Broken Social Elevator? Chapter 1